

# 훼손된 자연자원 살리는 길

- 자연보호의식의 혁명을 위하여 -



오 휘 영  
(국립공원협회 회장)

존경하는 탁병오 서울시 부시장님, 김세욱 국립공원 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전국지부에서 모이신 국립공원협회 회원과 국립공원 관계자 및 애호가 여러분!

붉디 붉은 단풍이 어느때 보다 고운 자태를 뽐내는 이 가을에, 우리는 삶의 터전인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국토를 오래오래 보존하며 가꾸자는 마음으로, 수도권 최대의 명산인 북한산 국립공원 서쪽 자락에 모였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뜻깊은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있는 이 곳 북한산은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생태환경이 여러 사람들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무척이나 소중한 곳입니다.

조선조 '인조' 홍만종의 순오지(旬五志)에 보면, 고려개국의 공이 컸던 '도선'이 '松京'에 도읍을 정할 때, 주변 산천을 두루 둘러보고 하는 말

이, “이곳에 도읍을 정하면 나라가 800년은 이어나갈 것이니라”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 사방에 자욱하던 안개가 말끔히 걷히자, 그때 저멀리 동남쪽에 웅장한 모습의 삼각산의 자태가 우뚝 솟아나게 되었다합니다. 이를 본 도선은 한참동안 침묵을 하더니, “400년 후에는 도읍이 저 산 밑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니라”하면서 침통해 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북한산이 역사적으로 길지(吉地)였음은 이중환의 택리지를 비롯, 여러 문헌에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산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북한산에는 양치식물, 피자식물, 쌍자엽식물, 단자엽식물 등 650 종류의 식물상이 있고, 동물도 멧토끼, 다람쥐, 청설모, 족제비, 들쥐, 두더지 등이 아직까지 상당수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곤충도 아직은 1,470여종이 있고, 조류도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430여종 중에서 멧비둘기, 어치, 박새, 까치, 꿩, 꿩, 뚝지, 말뚝가리 등 60여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비봉 남쪽에 있는 ‘승가사’에는 보물 215호인 ‘마애석가 여래 좌상’이 있고, 국보 제3호인 ‘진흥왕순수비’, 종로구 신영동과 홍제동에 걸쳐 있는 서울시 유형문화재 33호 ‘탕춘대성’,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사적 362호인 ‘연산군의 묘’ 그리고 사적 162호인 북한산성 등 지정문화유산 만도 13개나 위치해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산은 수도권 최대의 생태계 보고이자, 역사적 장소로서 수도권 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한해동안 북한산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 수를 보아도 단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 수가 무려 4백17만여명에 달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연간 400만명이라는 엄청난 내방객 숫자는 도리어 북한산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의 답압과 부주의에서 빚어지는 자연환경 훼손, 잦은 탐방으로 인한 생물서식지 교란 및 자연자원의 격감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예전에는 흔하게 볼 수 있던 오소리, 고라니, 고슴도치, 노루 등은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상당수의 식물종 역시 감소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국립공원협회에서는 지난해부터 국립공원 문화의 정착과 창달을 위해 ‘국립공원 환경해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매월 2회 북한산을 찾는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환경해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립공원이 지니고 있는 역사, 문화유적, 자연자원 등의 관련지식을 탐방객들에게 제공해주는 일종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국립공원의 가치를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그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국립공원을 단순히 경치좋은 유원지로 인식하고 있는 이용객들이 적지않기 때문에, 북한산 내의 소중한 자연자원은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우리가 복원식재작업을 하려고 하는 ‘산개나리’만 하더라도, 1922년 조선총독부 시절 임업시험장에 근무하던 일본인 “나카이”씨가 세계 최초로 북한산에서 발견하여 세계식물 분류학회에 보고, 등록하여 명명된 세계 특유의 자생식물인데, 현재는 최초로 발견된 이곳 북한산에서마저도 거의 찾아볼 수 없어 환경부의 멸종위기식물로 분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국립공원을 찾는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국립공원내의 소중한 자연자원 감소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때문에, 휴식년제 도입, 비지터센터의 활성화, 입산예약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의 보완 및 올바른 탐방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더불어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활동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오늘 행사를 계기로 이 곳 북한산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자원이 올바르게 보전되고 관리되는 곳으로 탈바꿈되어, 대도시권에 인접한 국립공원 보전 및 이용의 모범적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모든 국민과 함께 우리 협회 회원 모두가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리 훌륭한 헌장, 법규, 구호, 제도가 있어도 자연을 이해하고 보호하고

자 하는 국민의 마음에 자연사랑의 싹이 돋아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나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가짐에 자연사랑의 씨앗이 심어져야 하며, 이것이 바로 국립공원 자연자원 보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대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11월 11일

국립공원협회 회장 오 휘 영



위의 글은 국립공원협회가 지난 11월 11일 북한산 국립공원 북한산성에서 개최한 2000년도 첫 국립공원대회에서 낭독한 오휘영 회장의 대회사 전문이다.

자연공원사랑과 자연자원보존의 의지, 협회의 위상과 다짐 등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로 판단되어 그 전문을 실는다.

〈편집자 주〉